

한국문화교류 소식

2호 2011년 12월 15일 발행 • 발행인 이광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Seoul)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0 층무빌딩 303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한국어를 AP과목으로!’



이광규 본회 이사장

한국의 수능고사에 해당하는 미국의 수능에는 SATI과 SATII가 있습니다. SATII는 각 과목 시험으로 영어, 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외국어의 5과목이 있고, 외국어에는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러시아어의 6개 언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어, 중국어가 추가된 이후 1996년, 마침내 한국어가 추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SATII 외국어 분야에 한국어가 포함된 것은 재미동포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일본어가 SATII에 추가되었을 때 일본이 세계 2대 경제 강국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본어가 SATII에 포함되자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어가 유엔 언어의 하나라는 이유로 SATII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 당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어가 SATII에 포함되자 재미동포 대표들이 교육당국(College Board)을 방문하여 한국어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미 교육 당국에서는 한국어가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유명하지 않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의논 끝에 한국어를 SATII에 포함시킬테니 6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 미국의 동포들이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1년도 되지 않아 60만 달러를 거두었는데, 한국의 모 기업이 60만 달러를 단독으로 후원해주었습니다. 대신 모금한 금액은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재단 설립에 쓰여졌습니다.

일본어는 2대 경제 강국의 언어이고 중국어는 유엔 언어이기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경제대국도 아니고 유엔어도 아니며 현대 과학

을 배우는 데 꼭 필요한 언어도 아닌 한국어가 미국 SATII 과목에 들어간 것은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230만의 재미동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어가 SATII 과목으로 계속 유지되려면 매년 2,000명 이상의 응시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그 수를 능가하는 미국 학생들이 응시하기에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미국 학생 2,000명이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동포 학생들이 주로 응시를 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요즘 들어 다행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미국에서의 한국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한국어가 미국 고등학교의 AP(Advanced Placement Program) 과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AP'란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학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AP에 선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뉴욕의 스타이븐슨트(Stuyvesant)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곳은 뉴욕에서 시험을 치르고 입학하는 3개의 고등학교 중 하나로 한국의 특목고에 해당됩니다. 2,800명의 학생 중 한국계 학생이 7%인 210명을 차지하며, 이곳에서는 SATII에 있는 모든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Korean I반에 32명, Korean II반에 26명, 총 58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학생의 약 4분의 1만 한국어를 수강하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외국어,

특히 중국어반과 일본어반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어와 일본어는 AP과목이고 한국어는 AP과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AP과목이 되는 조건은 무엇 일까요? 첫째, 미국 내에서 5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자동적으로 한국어가 AP과목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어 보급의 활성화는 바로 AP 과목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과 같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가 10년 내에 1,000개 학교에 한국어를 보급하자는 'Ten Thousand Project'는 AP 과목 선정과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이외에 미국 교육부 및 행정부에 진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500개 이상의 학교'에 대한 법적 부당성을 찾아내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미국 행정부에 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서명이 필요하고 기탁금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두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996년, 재미동포 230만이 뭉쳐 60만 달러를 모금하고 교육 당국에 진정하여 한국어가 SATII에 채택된 것이 한국어 국제화의 첫 번째 작업이었다면, 이것을 완성시키는 두 번째 단계는 한국어가 'AP과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 재미동포가 단합하고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어를 AP 과목으로 만들어 명실 공히 미국에서 당당한 외국어로 바뀌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즐거운 성탄과 함께
희망찬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드림



우리가 세계인에게 준 선물 태권도 : 그 도전과 전략



송 중 국 본회 운영위원 · 경희대 교수

차렷, 경례, 준비, 시작이란 단어는 국내는 물론 국외 어디서든지 태권도대회가 열리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다. 불과 50여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도이자 스포츠로서 우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준 스포츠 문화이다. 근대 스포츠 역사를 보면 축구, 테니스 등의 대부분 스포츠 종목이 1800 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농구와 배구 등 몇 개 종목은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국제스포츠로서 인정을 받았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태권도는 유럽과 미주,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 중동의 사막, 그리고 남미의 고산지대까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제 전 세계 200개국에서 수많은 수련생들이 태권도장에 들어서서 태극기를 보고 경례하고, 태권도사범의 우리 말 구령에 따라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한국 고유의 스포츠문화가 전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러한 성과는 갖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구촌 각지에서 태권도를 보급시킨 사범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분명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해 냈고 진정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의 사절단이다.

태권도 보급을 위한 이러한 노력과 함께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태권도 지원사업을 포함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제태권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의 태권도 선수 및 지도자를 초청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태권도특별법을 제정하여 태권도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1996년부터 태권도를 한복, 김치 등과 함께 한국문화 10대 상징으로 선정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태권도는 세계 각국의 도장에서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채택되어 청소년들에게 인격 수양을 위한 교육용 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란, 호주 등 여러 대학에서 태권도학과를 개설하여 태권도 학문의 연구와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태권도에 대한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국내의 경우 과거와 달리 태권도 선수를 제외하면 태권도 수련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만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을 뿐 청소년과 성인들은 거의 배우지 않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

의 저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현대인들에게 왜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지,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대표문화나 대표브랜드 등의 좋은 단어로 치장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 태권도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고,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면, 누구에게 태권도를 배우라고 권유할 수 있겠는가?

2013년, 태권도는 살아남을 것인가?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태권도 행정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IOC는 하계 올림픽 종목 26개에서 매 4년마다 재평가를 한 후 최하점을 받은 스포츠를 차기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즉 20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올림픽 핵심종목(Core Sports)’ 25개를 선정하는데, 태권도가 영구적인 정식종목으로 남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라테와 우슈 등 많은 종목들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만약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종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태권도의 세

계적 인지도는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태권도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계속 존속되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태권도 행정당국은 냉철한 분석과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나라의 태권도계가 세계 태권도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정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태권도유관기관에서는 세계 구석구석까지 태권도가 보급되도록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정부에서는 전 세계에 태권도문화가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태권도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는 한국의 이미지이며 귀중한 자산이다. 태권도가 지닌 교육-건강-평화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키워나가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이루어낸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국어반

린 다 김 차타후지 고교 · 테일러로드 중학교 한국어반 교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에게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은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겠지요? 이곳 조지아는 한국보다 따뜻한 곳이라 아직은 푸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6학년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아리랑’과 ‘군밤타령’을 가르쳤습니다. 가야금 선생님께서 반주를 해 주셔서 한결 쉽게 한국 민요를 소개할 수 있었는데, 한글을 배운 지 이제 겨우 2달 여 되는 미국 학생들이 열심히 아리랑과 군밤타령을 연습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의 군밤타령을 들으니 겨울이 벌써 한결큼 우리에게 다가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말이 아직은 많이 서툴고 어눌한 미국 학생들의 ‘아리랑’과 ‘군밤타령’은 듣는 사람에게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귀여운 미국 중학생들이 노래하는 우리 민요는 <http://mskimskorean-class.shutterfly.com/pictures>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09학년도에 시작된 조지아주내 K-12 한국어반이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설되었고,

또 현재 성공적으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고교 졸업 시 학점을 인정받는, 정식 외국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간 조지아주에서 진행되어온 K-12에서의 한국어반 개설 상황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최근 수년 동안 해외거주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한국학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지원과 해외 대학들의 한국학 보급 및 진흥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 전역에 중국어가 개설된



테일러로드 중학교 한국어반

초·중·고교의 수가 1,000개가 넘고, 일본어는 700여개인데 반해, 한국어 개설 학교는 겨우 70개교이고, 이것도 3분의 2가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 몰려 있음을 볼 때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한다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사업방향에 많은 지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조지아 주는 최근 애틀란타로 한인들의 이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LA와 뉴욕에 이어 한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비공식 집계로 30만 이상)로 성장했고, 더군다나 인근 앨라바마 주에 현대자동차 공장 설립과 조지아 주 웨스트 포인트시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완공되어 많은 일자리(하청업체 직원을 합쳐서 10,00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이 채용됨)가 창출되어, 한국과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조지아 지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군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폴톤카운티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탄생을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수년간 해당 교육청에 공을 들여 이룩해낸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 - 한국어반 신설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가 한국어반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학교당국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반이 신설, 유지될 수 있으려면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에 개설을 요청하려면 우선 수강할 학생을 확보해야 하고, 신규 학급을 학교장에게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확신과 신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신청 학교장과의 면담을 통한 관심 유도 - 수강할 학생 확보와 학부모의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엔 해당 학교장에게 개설 요청을 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차타후치 고교 학교장은 한국학생들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를 주셨습니다.

3. 해당 학교에 설문조사를 하여 잠재적인 수요 확인 - 교육구에 정식 제안서를 거치기 전 학교장의 요청으로, 9~11학년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개설되면 수강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규 외국어 수업,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선택사항을 나누어서 물어보았는데 정규수업에 몇 개 반을 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장도 만족스러워했고 다음 단계인 교육청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교육구청에 제안서 제출 - 제가 학부모 연락담당자(Parent Liaison)으로 일하고 있었던 차타후치고교에 속한 폴톤카운티 교육구에 한국어반 신설을 제안했을 때,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이미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신설 교육프로그램으로 상정되어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은 매해 10월말에 이사회에서 상정되어야 하므로 한 해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3년 가까이 기다려 온 일이었지만, 개설을 눈앞에 두고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 2008~09학년도에 테일러 중학교 7학년 한국어반 신설 - 조지아주 공립학교는 7학년에 새로운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7, 8학년 2년간의 수업으로 1학점을 인정받아 고등학교 학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7, 8학년에서 외국어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9학년, 즉 고교

입학할 때 새로운 외국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이 한국어반은 그 다음해인 2009년도에 교육부 예산삭감으로 인해 더 이상 증설되지 않고 2010~11학년도까지만 운영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다. 한 번 외국어반을 신설하면 적어도 3년간(2학점)은 오픈을 해 주어야 하는 최소 의무기간 동안만 개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그동안의 작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설 목표로 하는 해당 학교들과의 긴밀한 관계구축입니다. 학교에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미국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한국문화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음식, 민속놀이, 예술 공연, 태권도 시범, K-POP 경연 등을 통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지난 98년에 설립된 한미교육재단(이사장: 허준) 산하 세종한국학교에서 미 학교와의 수년간의 교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성공적인 한국어반 개설을 이끌어 낸 사례가 말해주듯이 한국어반 개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한국어와 태권도 보급을 조지아 내 공립 초·중·고교에서 시행한다면 성공률이 매우 높은 교육 사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조지아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졸업률(60% 미만)이 제일 낮은 주 중의 하나입니다.



차타후지 고교 한국어반

우선 몇 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방과 후에 태권도반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해당 학교나 교육구는 반드시 한국어반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육체와 정신을 수련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힐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학습에 관심이 높아져 수강 인원이 증가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입니다. 일부 한인 학부모들이 미국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미래 지향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으로 설득한다면 충분히 지지 세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인 2, 3세에 국한된 교육만이 아니라 비한국계에게도 한국어를 교육하는 일은 한국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임을 학부모들에게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조지아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차세대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혜택이라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면, 수준과 학년에 적절한 교재 개발이 시급합니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6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한국어 교재와 학습 부교재를 찾는 것이 매우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특히 영어권 중·고등학생의 발달 상황에 맞는 교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한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장학생 선발, 여름 캠프, 글짓기 대회 등 한국어

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곳 조지아 주에서의 초·중·고교에서 정식 외국어 과목의 하나로서 한국어반은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딘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규 프로그램으로 오래 유지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태권도 소식

美 LA 공립학교 태권도교실 수료식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원장 김재원)은 3일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 페어팩스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역 공립학교 태권도 교실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12개 초·중·고교에 마련된 태권도 교실에서 10주 과정을 이수한 학생 400명이 노란띠를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은 작년부터 한국 문화의 확산과 국가 브랜드 가치 고양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지역 공립학교 태권도 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범 인건비와 도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2011. 12. 04.

코헝가 초등학교 전교생이 태권도 배워...

LA초·중·고 '으랏차' 바람

작년 8개 학교서 급증

가을학기 12개 학교 참여

LA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또다시 '태권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스타트는 LA한인타운 내 코헝가 초등학교가 끊었다. 이 학교에서는 9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2시 30분에 태권도 수업이 열리고 있다. 코헝가 초등학교에서의 태권도 인기는 폭발적이다. 826명 학생 전원이 태권도를 배운다. 이 가운데 75%가 타인종이다.



킨더가튼부터 5학년까지 모두가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져 있는 태권도복을 착용한다. 도복 일부는 LA한국문화원이 기증했고 나머지는 학부모들의 기증과 학교 예산으로 해결했다. 지난 해에는 50여명만이 태권도를 배웠다.

누구보다 태권도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이 학교 변지애 교장은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태권도 만한 것은 없다"며 "한인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는 타인종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인 친구들과 잘 융화돼 나중에 커서도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헝가 뿐만 아니라 9월에서 10월초까지 LA지역 초·중·고교들이 일제히 태권도 수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학교와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이 모두 늘었다.

지난 해에는 LA통합교육구(LAUSD) 내 코헝가, 3가, 윌튼 플레이스 등 8개 학교만 참여했지만 올해는 존 버로우 중학교와 LA 고등학교가 추가됐다. 또 라카나다 교육구의 라카나다 고등학교, 팜 크레스트 초등학교도 포함됐다. 총 12개 학교다.

특히 이번 가을학기 태권도 수업은 LA한국문화원이 LA통합교육구 산하 '비욘드 더 벨(Beyond the Bell)' 브랜치와 손잡고 진행되고 있다. '비욘드 더 벨'은 일종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수업 이후 각종 스포츠·음악·미술 등을 가르치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 심화활동을 제공하고 숙제를 도와준다. '비욘드 더 벨'은 이번 태권도 수업을 위해 직접 보험료까지 책임졌다.

한 한인 학부모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유익한 것 같다"며 "타인종 학부모 사이에서도 태권도 인기는 대단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1. 9. 10.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ICKC-Seoul)

■ 2011.10.04. 고문단과의 만찬 및 간담회

ICKC의 서영훈, 박관용, 이휴원 고문들과 함께 만찬 및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의 한국어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운동본부의 활동 상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총재를 맡고 있는 이휴원 고문은 태권도 정신과 문화, 한글, 한국문화의 전파를 위한 운동본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약속하였습니다.

■ 2011.10.07. 565돌 한글날 기념 산행

운동본부 임원들과 회원들은 565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여주 영릉을 방문, 세종대왕께 참배하고 강원도 횡성의 숲치원에서 가벼운 산행을 하였습니다. 565돌 한글날 기념 산행을 계기로 2012년부터 매월 회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문화탐방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 2011.11.29. 2011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보고를 겸한 송년회 개최

보데가 인터볼고 레스토랑에서 권영호 고문, 이광규, 김길남, 김흥기 공동대표 등 운동본부 임원들과 초대 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ICKC 활동보고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동본부의 고문인 권영호 회장은 해외에서의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뉴욕지역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 ICKC-NY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내부 논의

뉴욕의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회(KLA) 김영덕 회장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이광규 이사장은 함께 만나 KLA를 ICKC-NY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의 KLA는 김영덕, 이광호 공동회장과 이선근 사무총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2012년도 문화탐방프로그램 안내

월/일	장 소	비 고
02/24	ICKC-하와이 지부	창립대회 참석
03/13	인왕산과 탕춘대 성곽	서울
04/10	장충단과 목면산서울	
05/08	마리소리골	강원도 홍천
06/12	북악과 백석동천	서울
07/10	응봉과 낙산	서울
8월	—	—
9월	중국 연변자치주	연변자치주 60주년 기념식 참석
10/16	보토현과 성북동천	서울
11/13	안산과 연희궁터	서울

【기타안내】

1. 회비 : 서울지역(₩50,000원), 지방(₩100,000원), 해외(별도안내)

2. 행사날짜

• 국내 행사: 상기 일정 참조(화요일)

• ICKC-하와이: 2월 24일(금) 창립대회 참석

* 2월 23일(목) 출발, 5박 6일 또는 7박 8일, 2개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중국 연변자치주: 8월 31일(금)~9월 4일(화), 4박 5일 예정

3. 연락처 : ICKC-Seoul 사무국 02)2285-1070

※ 상기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변경 및 추가)는 분기별 발간되는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여 주신 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을 소중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특별 재정 후원금 보내주신 분

고용규, 김원갑, 김진태, 김승주, 김정복, 문영호, 박의근, 박청수, 박태원, 송현철, 이병대, 이용석, 정현관,
조광호, 한복희, 허재희, 홍경자, 황영숙
총액 : 65,300,000원

□ 회비 보내주신 분(CMS)

강재근, 구병진, 김정복, 김정일, 김정택, 문영호, 박갑수, 박원출, 성효동, 이대근, 이용선, 이한실, 이향규,
위호인, 장만기, 정현관, 조춘연, 표재순
총액 : 4,370,000원

■ 후원회비 보내 주실 곳

-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희망찬 2012년을 맞으며...

우리는 한국어와 태권도의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국제교류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인이 가꾸고 지켜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인 한글,
그리고 한국어와 우리 전통무예인 태권도의 보급은
21세기에 만들어가야 할 국가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이 운동은 민족문화의 세계화를 넘어

한민족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 개편이기도 합니다.

국적과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유태교만 믿으면 유태인이라고 선언한 유태인 공동체는
혈연과 문화 그리고 전통을 기본 요건으로 하던 민족공동체 틀에서 벗어나
열린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인종의 구분 없이
한인공동체가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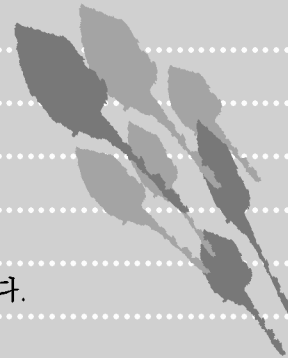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가 창립된

2011년 한 해가 운동본부의 활동 준비기였다면

2012년 새해는 진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운동본부’의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대표 이광규, 김길남, 김홍기 드림